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2월 3일)

1. 오리엔테이션 진행 상황 보고

2. '연세여성'(가칭) 편집회의 결과 보고

3. 확대운위 LT-체육경기 때 뭐할까?



"인간관" //

4. 열쇠-누가 가지고 있을까?

5. 학생 수첩 내용 토론

→

* 섹터별 대처방안.

* 음금 피임법

*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생각.

6. 한충련 분납금 토론

1. 자료 학습부.

- 대출 문제

- 제2대학

1998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기획 초안

" WELCOME TO YONSEI ^{WO}MEN'S UNIVERSITY !! "

일시 : 1998년 2월 18일 늦은 1시반 - 3시반

장소 : 신상대 강당

Yonsei University? Yonsei Men's University?

우리는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남녀공학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라는 남녀공학은 '양성'이 함께 다닌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無性的'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Yonsei University - 분명 이 곳은 남성만의 공간도 아니고 또한 여성만의 공간도 아니다. 남녀공학이라는 곳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남녀 간 아무런 차별이 없는 무성적 공간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성별 간의 역학이 존재하는 공간이지 않은가?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남녀공학이라는 뗏을 걸어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남녀공학에 다니게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학업 능력을 당당하게 인정받았음으로,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장애를 느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IMF이니 학부제이니, 요즘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대학 - 과연 여성에게 동등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가? 경제 위기 속에서, 실용성을 앞세우는 학부제 속에서, 우리는 '공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차별에 대해 눈감고 있는 그러한 공존이 아닌, 남성중심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의 공존, 남성이 여성의 경쟁 상대가 아닌 공존,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의 공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각본을 좇아가지 않고, 다른 가능성들을 타진해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문화제의 즐거움 - 그것은 단지 시각적인 화려한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짜여진 각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사의 좌담회와 문화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남녀공학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여성임을 즐거워하면서 진정한 남녀 공존의 길의 시작일 것이다!!

◆프로그램

1부 : 남녀공학....공존에 대한 다른 시각

영상물 - 남녀공학에 관한 여학생처 제작 비디오 편집 + 추가 촬영
좌담회 - 김현미 선생님 (여성학, 문화인류학 강사), 학부생 3-4명

(필요한 제각)

→ the other.

2부 : 멋진 女人们

시작 공연 - 여성 사물놀이꾼들 공연 (연세대 문과대 풍물패 '한울'에서 섭외)

게스트 - 황보령

'피날레' - 여성 춤꾼들 공연 (연세대 춤 동아리 '하리'에서 섭외)

☺ 필요한 물품

마이크 5개(4개는 핀마이크로-비싸다면 그냥 마이크), spotlight용 조명, 음향기기(?)

제1차 편집회의 정령

참석자: 하리, 피소, 하수, 강, 오늘

일시: 98.1.23

우대략적인 이야기들

이름: 미정

위상: 학내 여성전문 언론지

형식: 교지

대상: 학내 남,녀

목표: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잡아내고 여성주의 이론을 정립해나간다.

순수 학술지의 성격보다는 구체적, 개별적 경험들을 이론화해 나가면서 여성주의적 정치성을 드러낸다.

우창간준비호

#발간사-총장, 여학생처장, 여교수, 연합장, 총여장... *→ 학생대표*

#펴내는글: 편집위, 잡지의 성격과 목적(개괄)

기존 학내 여성언론(잉태, 연세여성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독립적 여성지로서의 위상부각

#특집글-현재의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망

1. 총여 & 자치단체 조망(인터뷰형식)

✓ 2. 여성들만의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 분석(휴게실, 화장실, 체육시설, 기숙사비율 등)

3. 여성지수: 학내 여자들의 삶의 단면도(여학생 비율, 교수-여직원 비율, 화장실, 취업, 학생회간부 비율 등)

#기획글-성폭력!!!

학생대표 1. 성폭력 일반

2. 성폭력 학칙제정 *(피해학생상담 등)*

3. 성폭력 상담소, 그 허와 실

연대!

#기타잡글

-편집부원 모집

-서평(김현미 선생님)

-인터뷰(이프 편집장) *다윤, 윤희경.*

-행사-3.8여성노동자의 날(본드), 페미니즘 캠프를 다녀와서(정미) *정미.*

-광고-새내기를 위한 여성학 커리

-정보뱅크와 페미니즘 카페 소개, 이용안내 *-만화*

-일정-배포: 3.23월 예정 (3.16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글마감: 2.28까지 꼭!!!